

키케로에 있어서 수사학과 정치*

김 용 민 |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키케로의 대표적인 정치철학적 작품인 『국가에 관하여』와 『법률에 관하여』가 그렇듯이, 그의 대표적인 수사학 작품인 『웅변가에 관하여』도 플라톤을 로마인의 관점에서 모방하고 있다. 키케로의 학문적 독창성은 바로 이 로마인의 관점을 견지하려는 데 놓여 있다. 수사학 작품인 『웅변가에 관하여』는 단순히 수사학의 기술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다. 이 기술보다 더욱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는 것은 이상적 웅변가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다. 이상적 웅변가는 플라톤이 제시하고 있는 철인왕이나 정치가, 크세노폰이 제시하고 있는 키루스왕에 대비되는 이상적인 통치자의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적 웅변가는 보편적인 지식과 웅변술을 겸비하고, 현실적인 정치의 장인 민회, 원로원, 법정에서 활동하는 정치가이다. 키케로는 수사학을 수단으로써 광장(forum)에서 활동하는 정치가가 변증법을 활용해서 혼자서 진리에 도달하는 철학자보다 우월하다고 보고 있다. 키케로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철학과 수사학의 싸움'을 종결지려 한다. 이 싸움에서 정치학이 부각되며, 수사학을 포함하는 폭넓은 인문교양교육이 정치교육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된다.

주제어: 철학, 수사학, 정치, 정치가, 웅변가, 변증법, 보편적 지식, 기술, 인문교양교육, 로마인의 관점

* 이 연구는 2007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I. 서론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106-43 B.C.)의 정치철학은 그의 대표적인 정치적 작품인 『국가에 관하여』와 『법률에 관하여』에 잘 나타나 있다.¹⁾ 이 두 작품은 각각 플라톤이 지은 같은 이름의 대화편인 『국가』와 『법률』을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키케로는 플라톤의 두 대화편을 단순히 모방하고 있지는 않다. 키케로가 단순히 모방할 것을 의도했다면, 두 대화편을 번역했으면 되었을 것이다. 키케로의 독창성은 플라톤을 ‘로마인의 관점’에서 모방하고 있다는 데 존재한다. 키케로는 ‘로마인의 관점’을 통해 한편으로는 플라톤을 모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플라톤과 결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철학적 시각을 얻고자 했다. 키케로가 추구했던 ‘로마인의 관점’이란 그리스인들의 지식과 로마인의 경험과 격를 겸비한 가운데, 로마인의 실제적 삶과 습관이 현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로마공화국의 역사에서, 이상적인 국가의 실례나 모델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에 관하여』와 『법률에 관하여』에 앞서서, 키케로의 정치적 관심은 물론 로마인의 관점이 잘 드러나고 있는 대화편이 『웅변가에 관하여』(*De Oratore*)인데, 이 대화편은 기원전 55-54년에 쓰인 키케로의 초기 작품이다. 키케로는 18세 때인 기원전 85년에 수사학과 관련된 『발견론』을 저술하는데, 이 작품은 키케로가 수사학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노트에 받은 적은 것으로 독창적인 저술로 볼 수 없다. 『웅변가에 관하여』는 수사학의 기법에 관해 주로 논의하고 있는데, 논의의 초점은 ‘이상적인 웅변가’(the ideal orator)가 어떤 사람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이상적인 웅변가는 법정, 민회, 원로원 등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런 웅변가는 실제적으로 정치가와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Atkins 2000, 487).

『웅변가에 관하여』에서 주요 화자로 등장하는 로마의 유명한 웅변가이자 정치가인 크라수스(Lucius Licinius Crassus, 140-91 B.C.)와 안토니우스(Marcus Antonius, 143-87 B.C.)는, 이상적 웅변가는 정치철학, 윤리학, 심리학 등의 보편적인 지식에 조예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법적인 소송을 위해 필요한 수사학의 기술만 습득해도

1) 키케로의 『국가에 관하여』와 『법률에 관하여』에 대한 필자의 해석으로 김용민(2007) 참조.

좋은지에 관해 논쟁을 벌인다. 제1권에서 크라수스는 웅변가는 철학적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대변하며, 안토니우스는 웅변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필요한 수사적 기술만 갖추면 된다는 입장을 대변한다. 크라수스와 안토니우스 각각의 입장은 대화의 초기에는 대립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후에 제2권의 전반부에서 안토니우스는 웅변가는 철학적 지혜를 습득해야 한다는 크라수스의 입장에 동감을 표명하면서, 자기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대화를 심도 있게 이끌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밝힌다(*De Oratore*, 2.40).²⁾ 키케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신의 대화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고 있는 "양쪽의 측면에서"(in utramque partem)를 구현하고 있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키케로가 제시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웅변가는 진리라는 철학적 지혜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수사학의 기술을 사용하여 그 진리와 지혜를 법정과 민회와 원로원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드러난다. 키케로에 있어 이상적인 웅변가는 이상적인 정치가이며, 이상적인 인간유형으로 존재한다. 이는 철학자에서 통치자를 찾고 철학자를 이상적인 인간유형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플라톤의 입장과 구별된다. 키케로의 고유한 '로마인의 관점'은 순수 지식만을 갖춘 플라톤적인 철인왕이 아니라, 보편적 지혜와 웅변술을 갖춘 실천적 정치가를 이상적인 통치자로 제시하고 있는 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키케로의 수사학에 관한 작품은 『웅변가에 관하여』 이외에, 기원전 46년부터 45년 사이에 출판된 『브루투스(Brutus)』와 『웅변가(Orator)』가 있다. 이 세 작품의 관계에 대해서 『웅변가에 관하여』에서는 수사학 이론의 토대와 이상적 웅변가상이 제시되고 있고, 『브루투스』에서는 로마의 역사에 등장한 유명한 웅변가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웅변가』에서는 이상적 웅변가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는 면에서, 이 세 작품이 함께 모여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해석이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웅변가에 관하여』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사학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론적 관점이, 『브루투스』나 『웅변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화려한 미사여구를 중시하는 아시아식 웅변술에 대한 옹호나 단순한 문체를 중시하는 아티카식 웅변술에 대한 비판과 같은 키케로의 편향된 관점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세 작품 간의

2) 키케로의 작품에 대한 인용은 서명, 권과 행을 밝히기로 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에 대한 인용은 고전작품에 대한 인용방식을 따르며, 기타 연구자에 대한 인용은 본문 주 형식을 따른다.

통일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주류적 해석이 존재한다.³⁾ 『브루투스』는 대화양식으로 쓰여진 책으로, 키케로, 키케로의 절친한 친구 아티쿠스, 그리고 브루투스가 화자로 등장한다. 이 대화편에서 키케로는 당대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역사상에 나타났던 웅변가들을 아시아식과 아티카식이라는 웅변술의 관점에 근거해서 소개하고 평가하고 있다. 『브루투스』는 물론 수사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지만, 키케로가 언급하지 않았다면 역사에서 잊혀졌을 수많은 웅변가들이 삶이 기록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웅변가』는 대화편이 아니라 키케로가 브루투스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티카식 웅변술의 유래 및 잘못된 인식과 전파과정이 기술되어 있고, 산문의 운율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웅변가의 활동은 발견(inventio), 배치(dispositio), 표현(elocutio), 기억(memoria), 발음 및 연기(actio)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지는데,⁴⁾ 『웅변가』에서는 기억에 대한 약간의 암시가 있고, 발견, 배치, 연기에 대해서는 몇 문장에서 간단히 언급되었을 뿐이며, 책의 3/4정도가 표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키케로는 웅변가는 보편적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철학과 수사학 사이에는 다름이 있어왔다. 키케로는 어느 한편만을 옹호하지 않고 있다. 그는 한편으로 전통적인 수사학이 규칙에만 얽매어 있다고 비판함으로써 수사학과 거리를 두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실천적인 경험을 결여하고 이론적 지식의 추구에만 매진하는 철학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 『웅변가에 관하여』에서 나타난 키케로의 목적은 철학자와 수사학자의 싸움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 해결책은 로마식의 새로운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중간적 길이며, 정치의 길이다. 키케로가 이상적인 통치자로 생각한 것은 플라톤의 『국가』에서 제시되고 있는 좋음의 이데아를 꿰뚫은 철인왕이나 『정치가』에서 제시되고 있는 측정의 기술을 지닌 정치가가 아니고(김용민 1995), 크세노폰의 『키루스의 교육』에서 제시되고 있는 우정

3) 아시아주의와 아티카주의는 '감정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체 논쟁이다. 아시아주의자인 키케로는 감정 사용 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아티카주의자들은 소극적 입장을, 아니 감정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티카주의의 특징은 감정보다는 이성, 화려함과 웅장함보다는 간결함과 명확성을 선호하는 데 있다. 대표적인 아티카주의자인 브루투스가 키케로 문체를 아시아주의자 공격하자, 이에 대한 방어로 나온 것이 바로 이상적 웅변가론이다. 안재원(2007, 209) 참조.

4) 이 다섯 단계는 착상, 배열, 표현, 기억, 발표로 번역되기도 한다.

을 활용하는 정치가도 아니라(김용민 2000), 보편적 지식과 동시에 훌륭한 화술을 겸비한 정치가라고 할 수 있다.⁵⁾ 플라톤이 “시와 철학”의 싸움에서 철학을 옹호하고 있다면, 키케로는 “철학과 수사학”의 싸움에서 수사학을 옹호하고 있다. 키케로는 철학과 수사학, 지혜와 웅변, 철학자와 수사학자와의 싸움을 무마시킬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정치연설가 혹은 정치웅변가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서로 우위를 다투는 철학이나 수사학보다 정치가 더욱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키케로의 수사학은 전통적인 수사학에서 벗어난 새로운 ‘웅변술’(oratory)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웅변술은 고대 그리스적 전통과는 구별되는 로마 전통의 정치영역 및 정치교육의 방법을 열어주고 있으며, 새로운 정치적 지도자의 상을 제시하고 있다. 키케로의 수사학에 관한 작품들은 그의 『국가에 관하여』와 『법률에 관하여』가 그러했듯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대정치철학의 관점과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4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키케로의 수사학에 대한 관점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어떤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가가 논의되고, 제3장에서는 『웅변가에 관하여』를 중심으로 수사학과 정치와의 관계가 논의되며, 제4장은 결론 부분으로 키케로가 수사학적 작품을 통해 소크라테스로부터 비롯된 철학과 수사학의 분열을 극복하면서 정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고 있음을 밝힌다.

II. 철학과 수사학의 싸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키케로가 자신의 수사학 이론을 전개하면서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플라톤의 대화편인 『고르기아스』(*Gorgias*)와 『파이드로스』(*Phaedrus*),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Rhetoric*)이었다. 키케로는 소크라테스에 의해 수사학의 존립근거가 궁지에 몰리고 있는 『고르기아스』보다는, 수사학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5) 우리는 여기서 고대정치철학에 나타난 이상적 정치가에 관한 4가지 이론적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키케로는 웅변을 정치가의 중요한 자질로 보았다는 점에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크세노폰과 구별된다.

긍정적 태도가 엿보이는 『파이드로스』에 더욱 우호적이었다. 『웅변가에 관하여』의 첫 부분의 대화가 시작되는 환경은 『파이드로스』의 자연적인 대화환경을 모방하고 있으며, 크라수스가 호르텐시우스의 웅변술을 칭찬하고 그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는 『웅변가에 관하여』의 마지막 부분은 소크라테스가 이소크라테스의 재능을 칭찬하고 그의 장래를 촉망하는 『파이드로스』의 마지막 부분을 모방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키케로가 『파이드로스』에게 호의적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플라톤이 『파이드로스』에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데아 또는 형상은 아름다움의 이데아이지, 키케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웅변의 이데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Long 1995, 52).

철학과 수사학을 분리하여 수사학을 ‘기술’(art)⁶⁾ 못되는 아첨술의 일종이라고 단정하여 무시하고 있는 플라톤의 입장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기술의 일종이라고 정의하며 수사학에 독립적인 학문적 지위를 부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이 변증법과 유사하며 이 양자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음을 『수사학』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수사학은 변증법과 짝을 이룬다. 이 둘이 다루는 대상에 대한 인식은 어느 특별한 학문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식으로 모든 학문에 공통적인 것이다. 따라서 모든 학문은 그 어떤 방식으로든 이 두 분과 학문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논거를 검토 내지 지지하고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고발하기에 애쓰는 것은 사실이다(Rhetoric, 1354a1-6).” 키케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대한 관점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여 『수사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사학의 이론과 기술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수사학에 대한 키케로의 기본적인 목적은 『고르기아스』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의 수사학에 대한 비판과 폄하를 극복하고, 『파이드로스』에 나타나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친 수사학적 관점을 확장시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를 빌어 철학과 수사학의 결합을 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철학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플라톤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키케로는 『웅변가에 관하여』에서 크라

6) 기술은 넓게는 다소 체계적인 훈련이나 습씨를 의미하며, 좁게는 원하는 실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신뢰할 만한 지식체계나 이 지식체계에 근거한 실천적 습씨를 의미한다.

수스의 입을 빌려 소크라테스가 철학과 수사학을 분리하기 이전에는 철학과 웅변, 사상과 말하기는 서로 결합되어 있었고, 이 결합은 지혜라고 불렸다고 말한다. 이러한 지혜가 분열되어 철학과 수사학이 나누어지고, 수사학에 대한 비판과 폄하가 생기게 된 것은 소크라테스 탓이라고 크라수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학자들의 만장일치적인 증언과 모든 그리스인의 판단에 따르면, 소크라테스가 어떤 화제를 선택해서 관심을 갖든지 간에 누구보다도 더욱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데, 이것은 그가 지닌 지성, 통찰력, 매력, 세련됨뿐만 아니라, 언변, 다양성, 충만함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주제와 행위에 관해 논의하고, 이것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의 동일한 이름을 지니고 있었는데(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물에 대한 지식과 동시에 사물에의 실천적 참여는, 전반적으로 철학이라고 불렸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이 사람들로부터 철학이라는 공유된 타이틀을 박탈해 버렸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논의에서 현명한 의견을 형성하는 지식과 유려함을 지니고 말하는 지식을 분리했는데, 이 두 지식은 사실상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그의 천재와 다양한 대화들은 플라톤에 의해 그의 대화편 속에서 불멸의 것으로 남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자신은 한 글자도 기록된 형태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소위 혀와 뇌 사이의 분열의 원천인데, 이 분열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해롭고, 후회스러운 일이며, 또한 이 분열은 사상을 가르치는 선생과 말하기를 가르치는 선생을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많은 학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소크라테스에게서 찾고 있는데, 왜냐하면 서로 다른 추종자들이 이미 변화되고 다양해지고 모든 방향으로 가지를 쳐버린 소크라테스 논의의 다양한 측면을 각각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위 상호 불일치하는 학파들이 생겨났고, 이들은 뚜렷이 구별되고 차이를 지녔다. 비록 모든 철학자들은 아직도 소크라테스의 추종자라고 불리길 원하고, 진실로 추종자라고 믿고 있었지만 말이다. 첫째, 플라톤으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와 크세노크라테스가 나왔는데, 이들의 학파는 각각 소요학과 아카데미로 불렸다. 다음으로, 소크라테스의 대화에서 인내와 견고함에 대한 아이디어에 특별하게 매혹되었던 안티스테네스로부터 먼저 키닉학파가 나오고 나중에 스토아학파가 나왔다. 최종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쾌락에 관한 논의에 매우 감명을 받았던 아리스티푸스로부터 키레네 철학이 나왔는데, 이 철학을 아리스티푸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허심탄회하게 또한 무조건적으로 방어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날 쾌락이라는 척도로 모든 것을 측정하는 사람들은 비록 겸손함을 지니고 측정하긴 하지만, 자신들이 거부하지 않는, 명예로운 사람들의 주장을 충족시키거나, 자신들이 감싸길 원하는 쾌락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는다.⁷⁾ 또한 기타의 다른 학파의 철

학자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소크라테스의 추종자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에레트리아 학파, 에틸리아 학파, 메가리아 학파, 피론 학파가 속한다. 그러나 이런 학파들은 현재 존재하는 학파들의 강한 논쟁에 의해 아주 오래 전에 깨어지고 사라져 버렸다(*De Oratore*, 3.60-62).

위 인용문의 끝부분에서 언급된 '현재 존재하는 학파'는 아카데미학파, 소요학파,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를 말한다.⁸⁾ 이들 네 학파는 모두 소크라테스의 후예를 자처하고 있는데,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사학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키케로가 볼 때, 전통적인 지혜와 철학을 파괴한 사람은 『고르기아스』에 등장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이다. 『고르기아스』에서 주요화자는 소크라테스, 고르기아스, 폴로스, 칼리클레스인데, 소크라테스를 제외한 나머지 화자들은 수사학의 옹호자이다. 고르기아스는 수사술은 전지전능한 힘을 지녔으며 이것을 지닌 웅변가는 모든 대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고 대중을 통치하는 정치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수사자들이 여타의 다른 전문가들보다도 대중을 상대로 하여 더 설득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논제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Gorgias*, 456c).”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존재와 현상,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면서, 고르기아스의 수사술은 존재보다는 현상을 진리보다는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수사술은 참된 세계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세계를 조작해 내며, 대중에게 야망을 떠는 아첨술이며 대중을 기만하는 사기술이라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논박을 통해서 드러나는 고르기아스 수사술의 특징을 다음 다섯

-
- 7) 여기서 키케로가 에피쿠로스학파를 소크라테스의 추종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키케로는 모든 철학적 학파가 수사학에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 학파도 소크라테스의 추종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 8) 이 학파들에 대한 키케로의 설명과 평가는 『최고선과 최고악』에 잘 나타나 있다. 키케로는 에피쿠로스학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의 입장을 취했으며, 스토아학파에도 반대했으나 이 학파의 도덕적인 가르침을 일부 수용하기도 했다. 당시 아카데미학파는 지식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회의주의에 빠진 신아카데미학파와, 지식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의 회복을 위해 플라톤적인 전통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구아카데미학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키케로는 온건한 회의주의를 표방한 필로의 입장을 수용했으며, 신아카데미학파를 추종했다. 그러나 키케로는 신아카데미학파로 남기보다는 당대의 모든 학파를 어우르는 절충적인 입장을 택했다고 평가된다.

가지 명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르기아스의 수사술은 완전한 지식을 산출하지 못한다. 그것은 사이비 지식, 즉 억견만을 산출하는데, 그것은 도구적 이성에서 발생하는 사이비 지식이다. 둘째, 고르기아스의 수사술은 정의롭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은 기술이다. 소크라테스는 그것에 대항해서 참된 수사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셋째, 고르기아스의 수사술이 탐구하는 것은 가시적 현상이다. 넷째, 고르기아스의 수사술은 무지한 대중을 상대로 허상을 조작해 낸다. 그리고 그것이 추구하는 것은 참된 것과 선한 것이 배제된 거짓된 것과 쾌락적인 것이다. 다섯째, 고르기아스의 수사술이 공개적으로 선전하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수행되는 것 사이에는 복구 불가능한 심연이 존재한다(박규철 2003, 71-72).

고르기아스의 수사술에 대한 논변이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무참히 깨지는 것을 본 고르기아스의 제자 폴로스는 다시 한 번 보다 강력하게 수사술을 옹호한다. 폴로스는 수사술은 정의나 도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사용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수사술을 사용하여 권력, 명성, 부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수사술은 존재의 근거나 인간 행위의 도덕적 원리를 탐구하는 데 그 중요성을 두고 있지 않다. 그는 수사술을 잘 구사하는 웅변가를 무한한 권력을 창출하는 정치가로 보고 있으며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참주와 동일시하고 있다. 폴로스의 주장은 논파하는 과정에서, 소크라테스는 수사술은 사람의 입맛만을 맞추려는 요리술과 짝을 이루는 아침술에 불과하다고 정의를 내린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경험과 쾌락에 호소하고 있는 사이비 기술로서의 아침술을, 영혼에 관계된 퀘변술, 수사술, 그리고 육체에 관계된 화장술, 요리술의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인식에 근거하고 있는 순수 기술로서 영혼에 관계된 정치술로서의 입법술과 사법술, 그리고 적당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육체에 관계된 기술로서의 체육술과 의술을 제시하고 있다.⁹⁾ 여기서 영혼을 돌보는 정치술

9) 이 내용을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박규철(2003, 102) 참조.

인간	영혼	참된 건강	정치술 입법술 사법술	사이비 건강	아침술 퀘변술 수사술
	몸	참된 건강	무명의 기술 체육술 의술	사이비 건강	화장술 요리술

은 '규정성' 과 '교정성' 의 잣대에 입각해서 '입법술' 과 '사법술' 로 나누어지고 있다. 입법술은 인간의 영혼을 규제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기술이고 사법술은 인간의 영혼을 교정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기술이다. 몸을 돌보는 기술도 규정성과 교정성에 입각해서 체육술과 의술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체육술은 인간의 몸을 규제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기술이고 의술은 인간의 몸을 교정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기술이다. 소크라테스는 요리술이 사람의 입맛에만 맞는 요리를 만들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잘못된 기술이듯이, 수사술은 특히 법정에서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을 해서 사람의 영혼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처벌을 피하게 해줌으로써 영혼을 정화시키는 데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기술에 불과할 뿐이라고 단정한다.

소크라테스는 칼리클레스와의 대화를 통해 수사술은 고귀하고 쾨변술은 열등하다는 그의 주장을 반박하여 수사술이 쾨변술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논증한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을 돌보는 기술 중에서, 영혼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다루는 입법술이 그것을 교정하는 차원에서 다루는 사법술보다 더 낮고, 체육이 의술보다 낮듯이, 입법술이라는 순수기술을 모방하는 쾨변술은 사법술이라는 순수기술을 모방하는 수사술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난다.

플라톤은 『고르기아스』에서 영혼을 돌보는 기술을 입법술→사법술→쾨변술→수사술의 순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물론 입법술과 사법술을 포괄하는 정치술은 영혼에 관한 최고 학문인 철학의 밑에 위치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철학과 수사학 사이에는 진리와 의견과의 사이, 존재와 현상과의 사이처럼, 메워질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그러나 키케로는 수사학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플라톤의 관점을 부인한다. 앞의 인용문에 나타났듯이, 키케로는 소크라테스를 뛰어난 철학자이자 동시에 언변에 뛰어난 사람으로, 다시 말해 웅변가로 평가하고 있다. 키케로는 『웅변가에 관하여』 제3권에서 카투루스의 입을 통해 소크라테스가 고르기아스를 논파할 수 있었던 것도 다름 아닌 소크라테스의 뛰어난 웅변술 때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De Oratore, 3.129). 만일 이 지적이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수용된다면, 키케로는 단숨에 철학에 대한 수사학의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고르기아스』를 자신의 관점을 정당화시키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의 수사학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대화편인 『파이드로스』의 주요 화자는 소크라테스와 파이드로스이다. 이 대화편에는 고르기아스와 같은 강력한 수사

학의 옹호자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학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보다는 수사학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구체적 설명이 그 중심을 이룬다. 파이드로스가 암기하여 소크라테스에게 말해주고 있는 리시아스의 사랑에 관한 연설문은 수사학을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파이드로스』에서 나타난 수사학에 관한 논의의 골격은 파이드로스가 말하는 수사학에 대한 상식적 정의와 이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본질적 정의로 정리될 수 있다. 파이드로스는 수사학은 본질의 차원이 아니라 외양의 차원에 존재한다는 세속적인 의견을 밝힌다: “소크라테스, 그 점에서 관해서 저는 웅변가가 되려는 사람은 무엇이 진실로 정의인가를 알 필요 없이, 판단을 내리고 있는 다중에게 정의롭게 보이는 것을 알 필요가 있으며, 무엇이 진실로 좋고 고귀한 것인지 알 필요 없이, 그렇게 보이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설득은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나오지, 진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Phaedrus, 260a).” 이런 세속적 의견을 논박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수사학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학이 필요하며, 철학의 도움을 받는 수사학은 교육이나 설득이란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은 자신이 그것에 관해서 말하거나 쓰는 모든 구체적 사물의 진실을 알아야 하며, 모든 사물을 분리하여 정의할 줄 알아야 하네. 사물들을 정의한 후에 그는 더 이상의 분절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까지 사물들을 항목별로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그는 영혼의 본성을 이해해야 하며 각 본성에 적합한 연설의 종류를 찾아야 하고, 자신의 논의를 적당하게 배열하고 장식해서 복잡한 영혼에게는 잘 다듬어지고 조화로운 논의를, 단순한 영혼에게는 단순한 말을 제공해야 한다네. 그가 이 모든 것을 획득하기 전까지, 그는 수사학적 기술의 방법에 따라서 — 이 방법이 연설을 통제할 수 있다면 — 교육이나 설득이란 목적을 위해 연설할 수 없는 것일세(Phaedrus, 277b-c).

여기서 사물을 분류하여 사물의 진실에 이르는 방법은 변증법을 말한다. 진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본성에 맞는 말을 사용해야 하지만,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본성은 이성적인 능력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은 이성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웅변가의 성격(ethos)과 상대방의 감정(pathos)도 고려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설을 통해 나타나는 설득 수

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설득 수단은 연사의 성품에 근거하든가, 청중으로 하여금 어떤 기분을 갖도록 만드는 데 근거하든가, 끝으로 연설을 통한 증명이나 유사증명의 제공에 근거한다(*Rhetoric*, 1356a).”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소크라테스는 성격이나 감정이라는 요소를 사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논의에 있어서도 철학과 수사학의 결합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철학의 도움을 받는 수사학을 사용하는 웅변가는 그 ‘표현’(elutio)이나 ‘연기’(actio)에 있어서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수사학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 그의 입장은 수사학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는 여성으로 의인화된 수사학과 수사학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스파르타 남성으로 의인화된 수사학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화된 수사학은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왜 당신들은 왜 그렇게 웅변술에 대해서 악평을 하시는 겁니까? 나는 어느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한 채로 말하기를 배우도록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충고가 어떤 가치가 있다면, 그는 진리를 먼저 배우고 후에 연설의 기술을 획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장하는 바는 나의 도움 없이 진리에 대한 지식은 설득의 기술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Phaedrus*, 260d).” 이 여성의 주장은 『고르기아스』에서 개진된 고르기아스의 주장과 다름이 없다. 이 여성에 반대하여, 수사학이 이론이나 기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스파르타 남성을 내세우면서,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말하자면, 어떤 논의가 다가와서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이 여자는 기술이 아니고 단지 기술을 결여한 솜씨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듯 하다네. 이 스파르타인은 진리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채로 있는, 진정한 연설의 기술은 존재하지 않고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네(*Phaedrus*, 260d-e).”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자신의 관심은 수사학이 과연 기술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수사학과 기술의 관계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있다.

소크라테스가 비록 수사학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긴 하지만, 그는 영혼의 윤회를 설명하면서 총 아홉 가지의 등급을 가진 영혼 중에서 수사학자의 영혼을 소피스트의 영혼과 동급인 8번째에 자리매김 하고 있다.¹⁰⁾ 운명의 법칙에 따라 인간의

10) 영혼의 윤회에 관한 플라톤의 설명은 『국가』와 『파이돈』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에

영혼은 윤회하는데, 신을 따르면서 진리를 목도한 영혼은 지상에 다시 태어나는 불행을 겪지 않으나 그렇지 못한 영혼은 지상으로 떨어져 아래와 같은 아홉 가지 등급의 영혼 중에서 하나를 갖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그런데 최상의 것을 목격한 영혼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또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사랑스러운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려는 사람의 씨 속에 깃들 것이고, 두 번째 종류의 영혼은 법률에 따라 행동하는 왕이나 잘 싸우는 통치자로 태어날 것이고, 세 번째 종류의 영혼은 정치가나 사업가 혹은 금융가로 태어날 것이고, 네 번째 종류의 영혼은 운동을 좋아하는 체육교사나 몸을 치료하는 의사로 태어날 것이며, 다섯 번째 영혼은 예언자나 승려의 삶을 살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고, 여섯 번째는 시인이나 그 밖의 모방적인 예술가로 태어날 것이며, 일곱 번째는 기술자나 농부의 삶으로, 여덟 번째는 소피스트나 대중선동가로, 아홉 번째는 참주로 태어날 것이라네(*Phaedrus*, 248d-e).

『파이드로스』에서 소크라테스는 『고르기아스』에서와는 달리 수사학에 대한 강력한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사학을 철학에 비해 상당히 열등한 지위에 놓고 있는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사학과 관련하여 키케로가 플라톤과 더불어 크게 빛지고 있는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키케로는 『웅변가에 관하여』에서 카투루스의 말을 통해 자신의 수사학의 중요 원천이 아리스토텔레스임을 밝힌다.

제가 굉장히 존경해 마지않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논거창고를 수립했는데 여기에는 철학자들 간의 토론을 위한 모든 논제들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법정에서 사용하는 연설의 종류에 맞는 논제들도 있습니다. 안토니우스여, 사실 당신의 입장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근접해 있어 왔습니다. 당신의 정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초인간적 지성을 닮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의 작품들을 읽고 스스로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당신은 그의 족적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De Oratore*, 2.152).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스승인 플라톤의 가르침을 따라 일단 수사학을 철학

서는 영혼의 종류와 그 등급이 자세히 논해지지는 않는다.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인간의 영혼을 천상에 있는 영혼을 포함하여 총 10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적이고 변증법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지만, 플라톤과 달리 감정과 감정유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러한 감정과 감정유발에 합리적인 논증에 비해 부차적인 의미밖에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플라톤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키케로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한계를 극복해서, 감정과 감정유발에 합리적 논증과 대등한 위상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에 의해 수사학의 기술은 한 단계 더 발전을 거듭해서 다양하고 복잡하고 풍부하게 된다.

III. 『웅변가에 관하여』에 나타난 수사학과 정치

1. 대화편의 배경과 구성

『웅변가에 관하여』는 기원전 91년 투스쿨룸에 있는 크라수스의 별장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화자는 당대의 유명한 연설가이며 정치가인 크라수스와 안토니우스, 크라수스의 장인인 스카이볼라(Quintus Mucius Scaevola, 복점관, 168/160-(?)87 B.C.), 그리고 웅변술에 관심이 많은 30대의 코타(Gaius Aurelius Cotta, 124-74/73 B.C.)와 술키피우스(Publius Sulpicius Rufus, 124/123-88 B.C.)이다. 제1권의 끝에 스카이볼라는 친구와의 저녁 약속이 있다고 대화그룹을 떠난다. 스카이볼라는 자기 집에 가는 도중에 카이사르(Gaius Julius Caesar Strabo Vopiscus, 131(?)87 B.C.)를 우연히 만나서 수사학에 관한 논쟁이 크라수스의 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전했는데, 카이사르는 때마침 자기 집에 찾아온 이복형인 카투루스(Quintus Lutatius Catulus, 149-87 B.C.)에게 이런 얘기를 전하고 다음날 아침 함께 크라수스의 별장을 찾아가서 대화에 동참하게 된다.

키케로는 투스쿨룸에서 벌어진 수사학에 관한 대화를 코타에게 들은 것으로 대화편을 구성하고 있다. 실제로 기원전 91년에 이런 대화가 있었는지에 학자들은 관심을 갖기도 했지만, 이 대화편은 키케로의 창작물이라는 점에 일치하고 있다. 기원전 91년은 로마와 동맹국간의 전쟁인 동맹전쟁(Social War, 91-89 B.C.)이 발발하기 직전의 시기로서, 로마공화국에 정치적 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실제로 이 대화편의 주요 화자 중의 한 사람인 크라수스는 키케로가 대화편 3권에서 기술하고 있

듯이, 대화에 참여한지 9일 후에 갑자기 죽었다. 키케로는 3권의 서문에서 이 대화편에 참가했던 화자들의 정치적 행적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정치적 투쟁의 과정에서 살해되거나, 자살하거나, 추방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카투루스는 자살을 하고(기원전 88년), 안토니우스와 카이사르는 살해당하고(기원전 87년), 코타는 기원전 91년 호민관 선거에서 패배하고 추방을 당하나 이후 집정관의 직위에까지 올랐으며(기원전 75년) 기원전 74/73년간에 죽었다. 화자 중에서 코타가 늦게까지 살았기 때문에 키케로는 코타에게 대화내용을 전해들은 것으로 대화형식을 구성하고 있다. 키케로가 대화의 배경 시기를 기원전 91년으로 잡은 이유는 키케로가 이 대화편을 구상할 당시인 기원전 46년에 로마공화국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내전이 계속되던 시기였다. 기원전 49년부터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고, 이 내전은 기원전 45년 카이사르의 승리로 끝났다. 승리의 영광도 한 때뿐, 카이사르는 기원전 44년 3월 15일에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등의 공화파 정치가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되었다. 키케로는 기원전 46-45년간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기원전 91년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대화편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웅변가에 관하여』는 모두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화는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날의 대화가 제1권을 구성하며, 둘째 날의 오전 대화가 제2권, 오후 대화가 제3권을 구성한다. 대화의 첫날, 대화 그룹은 크라수스의 정원을 두세 바퀴 돌았는데, 이 때 스카이볼라는 정원에 있는 나무가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 나오는 나무를 연상시킨다면서, 소크라테스가 그랬던 것처럼 나무 그늘 밑에서 쉴 것을 제안한다. 이에 크라수스는 정치적인 현안에서 벗어나 머리도 식힐 겸 수사학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말함으로써, 수사학에 관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된다. 모든 화자가 대화에 참여하지만, 크라수스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이상적인 웅변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탐구한다. 첫날의 대화가 끝나자 스카이볼라는 저녁식사 약속 때문에 퇴장한다. 연로한 스카이볼라는 플라톤의 『국가』 1권에서 나오는 연로한 케팔로스처럼 수사학에 대한 논의가 복잡해지고 심화되기 전에 대화 그룹을 떠나고 있다.

둘째 날에 카투루스와 카이사르가 대화에 새롭게 참가하는데, 크라수스와 안토니우스는 웅변의 다섯 단계인 발견, 배치, 표현, 기억, 발음 및 연기에 관한 논의를 둘로 나누어 안토니우스가 발견, 배치, 기억에 관한 논의를 그리고 크라수스가 표

현과 연기에 관한 논의를 각각 맡기로 약속한다.¹¹⁾ 오전 중에 안토니우스는 약속대로 발견, 배치, 기억에 관해 설명하며, 이에 덧붙여, 카이사르는 수사술에서 사용되는 유모와 재치에 관해 논한다. 크라수스는 해가 중천에 떠올랐으니 휴식을 취하자고 제안하며, 이에 따라 오전 대화는 마무리된다. 오전의 대화내용이 제2권을 구성한다. 오후의 대화에서 크라수스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심포지움』에서 소크라테스가 아가손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깊은 상념에 빠졌던 것처럼, 크라수스는 2시간 동안의 휴식시간 내내 깊은 상념에 빠진다. 휴식 후에 만난 대화 그룹은 관목 숲에 앉아 대화를 하는데, 이렇듯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대화 환경은 전날의 대화 환경과 비슷하다. 크라수스가 맡은 주제는 표현과 연기에 관한 것인데, 이것에 관한 논의는 그의 깊은 상념(더 정확하게는 키케로의 깊은 상념)을 반영하는 독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후의 대화내용은 제3권을 구성한다.

제3권에서 크라수스는 표현과 연기라는 수사학의 전문 주제에서 벗어나서 이상적 웅변가에 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볼때, 제1권과 제3권은 이상적 웅변가에 관한 탐구로 서로 연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언급은 3.54-89 부분에 나타나고 있고 둘째 언급은 3.104-43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철학과 수사학이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분리되었음을 말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일반주제(theses)와 특수주제(hypotheses)를 구분하고,¹²⁾ 특수주

11) 이 다섯 단계에 대한 논의가 2, 3권의 주요 주제이다. 이 다섯 단계를 포함한 전체 수사학의 체계는 『수사학: 말하기의 규칙과 체계』(*De Partitones Oratoriae: Of Classification of Rhetoric or The Division of Oratory*)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대화편은 키케로와 아들 마르쿠스와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대화편의 목적은 라틴어로 된 수사학 이론서를 로마의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데 놓여있다. 한국어 번역본으로 안재원(2006), 양태종(2007)의 것이 있다.

12) 헤르마고라스(Hermagoras)를 비롯한 많은 수사학자들은 수사학의 소재를 일반주제(theses)와 특별 주제(hypotheses)로 나누었다. 특별주제는 특정한 인물, 사건, 상황을 다룬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카토가 결혼해야 하는가?”는 카토라는 특정한 인물이 결혼이라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관점을 묻는 특별주제라고 한다면 “사람은 결혼해야 하는가?”는 일반적인 결혼관을 묻는 일반주제라고 볼 수 있다. 보편적 지식을 추구하는 일반주제는 주로 철학자들이 다루는 영역이다. 헤르마고라스는 일반주제도 수사학자들이 다루는 소재에 포함시킴으로써, 철학자들의 고유영역을 훼손하는 한편, 수사학자들이 갖출 수 있는 지식의 경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공헌했다. 그러나 수사학자들은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제에 천착하기보다는 대부

체를 다루는 세 가지 웅변형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정연설, 정치연설, 행사연설이 그것인데, 크라수스는 법정연설과 정치연설에 관해서, 특히 법정연설에 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연설기술은 행사연설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행사연설에 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있다. 크라수스는 웅변술의 원형을 법정연설에서 찾고 있다.

2. 이상적인 웅변가

키케로가 추구하는 이상적 웅변가가 갖추어야 할 철학적 지식은 전통적인 철학 영역을 포함한다. 윤리학, 물리학, 그리고 변증법이 포함된다. 윤리학에는 심리학과 정치학이 포함되는데, 웅변가는 청중의 마음을 휘어잡기 위해서 심리학을 이해해야 하며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는 정치학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윤리학은 규범적이기보다는 실천적이어야 한다. 플라톤의 철인왕은 좋은 사람으로 정의로운 제도와 교육을 통해 대중을 좋게 만들어야 할 도덕적 임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키케로의 이상적 웅변가는 지식을 갖춘 좋은 사람으로 자신의 웅변술을 도덕적인 목적에 사용하면 좋지만, 반드시 사악한 대중을 선한 대중으로 만들어야 할 도덕적 임무를 지니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면 청중을 조작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May and Wisse 2001, 12). 키케로는 『웅변가에 관하여』에서 이상적인 웅변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크라수스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상적인 웅변가는 대단히 많은 사물에 대한 지식을 획득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 없이 그냥 나오는 말의 흐름은 공허하고 경멸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이다. 언어는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배치에 있어서도 균형이 잡혀야 한다. 또한 그는 자연이 인류에게 부여한 모든 정감들에 대해 통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청중의 감정을 달래거나 자극시키는 데 있어서 웅변의 모든 힘과 가능한 모든 수단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어떤 종류의 정신과 유머를 지니고, 신사에 걸맞는 문화를 갖추고, 반박이나 공격에 있어서도 섬세함, 우아함, 세련된

분 특수주제에 천착했으며, 수사학자들의 이런 행태는 철학자들의 비웃음을 샀다. May and Wisse(2001, 25) 참조.

을 지니고 민첩하고 정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하는 것은 핵심적이다. 더욱이, 그는 실례와 선례로 가득 찬 창고와 같은 과거의 전 역사를 알아야 하며, 법규와 시민법을 숙지해야 한다. 내가 표현에 관해 아무 것도 침언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가? 표현은 신체의 움직임, 제스처, 얼굴표현, 그리고 목소리의 억양을 바꾸거나 변조시키는 방법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이것 자체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원하는 것인지는 무대 위에 서는 배우들의 사소한 기술을 봄으로써 알 수 있다. 비록 모든 배우들이 얼굴표현, 음성, 움직임을 규제하려고 무던 애를 쓰지만, 우리가 초조하지 않게 볼 수 있는 배우는 지금도 정말로 소수이며, 지금까지도 소수였을 뿐이다. 보편적인 재물창고인 기억에 관해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 이 기억의 능력이 우리가 고안해내었고 우리의 연설을 위해서 심사숙고한 개념과 단어들을 감독하는 수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용되지 않는다면, 웅변가의 모든 다른 능력들은,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De Oratore*, 1. 17-18).

키케로에 따르면, 이상적 웅변가는 보편적 지식을 갖추고 구체적인 법규와 시민법도 알아야 하며, 정감에 통달해야 할 뿐 아니라 청중의 감정을 달래거나 자극시킬 줄 알아야 하며, 유머와 재치를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며, 몸의 움직임, 제스처, 얼굴표정, 목소리를 가지고 청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또한 연설을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발견, 배치, 표현, 기억, 연기의 다섯 가지 규칙이 요구하는 바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철학에 정통한 이상적 웅변가는 소수의 철학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그의 주 임무는 연설을 통해 원로원의 의원, 민회의 시민, 법정의 청중들의 이성과 감정을 움직이고,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인하고 인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정치현장에서 활동하는 정치가인 것이다.

키케로는 전통적인 '철학과 수사학의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로마인의 관점'을 크라수스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주제의 내용을 전범위에 걸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또한 풍부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철학자에게 누군가가 웅변가라는 이름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내가 관계되는 한,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혹은 만약에, 내가 말하듯이 지혜와 웅변을 결합하고 있는 이 웅변가를 누군가가 철학자라고 부르기를 선호한다면, 나는 그를 말리지 않겠다. 그러나 사안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으나 그것을 말로 풀어내지 못

하는 사람이 지닌 어리석음을 칭찬한다든가, 역으로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말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지닌 무지를 칭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한 일이다. 만약에 두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조잘거리는 우매함보다는 늘변의 지혜를 선택하겠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의 대안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 승리는 학식 있는 웅변가에게 가야 한다. 만약에 철학자들이 이 웅변가를 철학자로 받아들인다면, 싸움은 끝난다. 그러나 만약 철학자들이 이 둘을 구별한다면, 철학자는 이 웅변가보다 열등한데,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지닌 보편적 지식은 이상적 웅변가도 역시 갖고 있는 반면, 철학자들의 지혜는 자동적으로 웅변을 함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철학자들은 웅변을 경멸하고 있지만, 웅변은 어떻거나 철학자들의 기술을 마무리 짓는 것들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진실이기 때문이다(*De Oratore* 3.142-3).

키케로가 강력하고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로마인의 관점은, 웅변에 철학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 키케로는 웅변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공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 권위도 지니는 것으로 보고 있다 (Fantham 2004, 313). 키케로는 이상적인 웅변가가 공공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공동체를 통치하는 안내자로, 또한 웅변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원로원이나 대중 앞에서나 공공 법정 앞에서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지도자로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De Oratore*, 3.63).

IV. 결어

로마공화국의 뛰어난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철학을 상찬했지만, 철학적인 삶을 활동적 삶인 정치적 삶보다 못한 차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Wood 1988, 57). 정치가인 키케로에 있어서 철학은 활동적 삶을 대신하는 대체재로 존재했으며, 공적인 집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을 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수단에 불과했다. 키케로의 주요 작품들이 그의 정치적 공백기에 저술되었다는 것은 철학에 대한 그의 관점을 잘 보여준다. 첫 번째 정치적 공백기인 기원전 55-51년 사이에 초기 대화편인 『웅변가에 관하여』 『국가에 관하여』 『법률에 관하여』가 저술되었으며, 두 번째 정치적 공백기인 기원전 46-43년 사이에 수사학과 관련된 『브루투스』와 『웅변가』, 그리고

철학적 주제에 관한 연작인 『호르텐시우스』, 『최고선악론』 『투스쿨룸에서의 대화』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 『예언에 관하여』 『운명에 관하여』와 기타 『노년에 관하여』 『의무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 등이 저술되었다(김용민 2007, 5-7).

지방귀족 출신인 키케로가 집정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그가 지닌 비범한 웅변술이었다. 전통적인 중앙귀족의 정치적 자원이 출신 신분이었다면, 키케로의 정치적 자원은 웅변술이었던 것이다. 키케로는 자신을 이상적인 정치가로 자평하기도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과 같은 정치가를 교육시키기 위해 『웅변가에 관하여』를 집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적인 정치가는 보편적 지식과 웅변술을 겸비해야 한다. 보편적 지식을 추구하는 과정은 철학적 고립화의 과정이지만, 웅변술은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공동화의 과정이다. 고립화와 공동화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구는 극단을 피하고 중간으로 수렴해야 한다. 이 중간에의 길은 현실적이며 경험적이며 구체적이고, 또한 보다 많은 사람에게 개방된 길이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소수의 철학자에게만 허용된 추상적인 변증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실천적인 인문교양교육(humanitas)에 입각해서 다수의 신사들이 획득할 수 있는 웅변술이 필요한 것이다.

웅변술을 배우는 사람은 우주, 자연의 본성은 물론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덕과 정치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을 얻게 된다: “웅변의 진정한 힘은 아주 막대해서 이것의 범위는 모든 사물의 기원과 본질과 변환을 포함한다. 이것은 덕, 도덕적 의무, 그리고 인간의 행위, 성격, 삶을 지배하는 모든 자연법을 포함한다. 웅변은 전통, 법률, 법적 타협을 만들며, 국가를 통치하고, 어떤 영역에 속하는 질문이든 간에 유려함과 풍부함을 가지고 대답을 한다(De Oratore, 3.76).” 이러한, 지식과 웅변술은 교육에 의해서 가능해 진다. 게르트 위딩(Gert Ueding)은 키케로의 가장 큰 공헌을 보편교육을 제도화시켰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보자면, 키케로는 수사학을 유럽 역사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심지어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철학마저 받아들이는 하나의 교육 세력으로 제도화시켰다. 수사학은 폭넓은 보편적 교육을 내포한다(위딩 2003, 56).”

키케로에 있어서, 웅변은 전통과 법률을 만들고 국가를 통치한다. 키케로와는 대조적으로, 플라톤은 전통과 법률을 만들고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웅변이 아니라 철학 혹은 지혜라고 말한다. 과연 누구의 말을 따를 때 정치의 영역이 개방되고 확대

되며 현실적이 되는 것일까? 우리는 키케로가 수사학에 대한 논의를 통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된 고대정치철학의 관점을 다양화하고 그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정치학은 물론 시민교육을 현실의 세계, 경험의 세계에 좀 더 가깝게 끌어오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 호세 안토니오 에르난데스 게레로, 마리아 델 카르멘 가르시아 테헤라 지음/강필운 옮김. 2001. 『수사학의 역사』.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용민. 1995. "플라톤의 정치철학." 김영국 외.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용민. 2000. "정치에 있어서 정의와 우정: 플라톤과 크세노폰." 『한국정치학회보』 34집 3호.
- 김용민. 2007. "키케로의 정치철학: 『국가에 관하여』와 『법률에 관하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6집 1호.
- 박규철. 2003. 『플라톤이 본 소크라테스의 도덕·정치철학』. 서울: 동과서.
- 양태종. 2003. 『수사학 이야기』.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 안토니 에버렛 지음·김복미 옮김. 2003. 『로마의 전설 — 키케로』. 서울: 서해문집.
- 게르트 워딩 지음·박성철 옮김. 2003. 『고전수사학』. 서울: 동문선.
- 키케로 지음·안재원 편역. 2006. 『수사학: 말하기의 규칙과 세계』. 서울: 도서출판 길.
- 키케로 지음·양태종 옮김. 2007. 『생각의 수사학: 대중을 상대로 말하는 방법』. 서울: 유로.
- Aristoteles. 1984. *Rhetoric in The Complete Works of Aristotle*. Jonathan Barnes,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tkins, E. M. 2000. "Cicero." Christopher Rowe and Malcolm Schofield, eds. *Greek and Roman Polit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iley, D. R. Shackleton. 1971. *Cicero*.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Cicero. 1967. *De Oratore*. trans. E. W. Sutton. Cambridge, M. A.: Harvard University Press.
- Cicero. 1971. *Brutus*. trans. G. L. Hendrickson. Cambridge, M. A.: Harvard University Press.
- Cicero. 1971. *Orator*. trans. H. M. Hubbell. Cambridge, M. A.: Harvard University Press.

- Everitt, Anthony. 2001. *Cicero: A Turbulent Life*. London: John Murray Publishers.
- Fantham, Elaine. 2004. *The Roman World of Cicero's De Orato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lton, James E. 1987. "Marcus Tullius Cicero." Leo Strauss and Joseph Cropsey, eds.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ong, A. A. 1995. "Cicero's Plato and Aristotle." J. G. F. Powell, ed. *Cicero the Philosopher: Twelve Papers*. Oxford: Clarendon Press.
- May, James M & Jacob Wisse, trans. 2001. *Cicero's On the Ideal Orato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lato. 1982. *Phaedrus*. trans. Harold N. Fowler. Cambridge, M. A.: Harvard University Press.
- Plato. 1983. *Gorgias*. trans. W. R. M. Lamb. Cambridge, M. A.: Harvard University Press.
- Powell, J. G. F. ed. 1995. *Cicero the Philosopher: Twelve Papers*. Oxford: Clarendon Press.
- Radford, Robert T. 2002. *Cicero: A Study in the Origins of Republican Philosophy*. New York: Rodopi.
- Stockton, David. 1971. *Cicero: A Political Biogra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ood, Neal. 1988. *Cicero's Social & Political Though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BSTRACT

Cicero on Rhetoric and Politics

Yong Min Kim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icero imitates Plato in a Roman perspective not only in his works of political philosophy such as *Republic* and *Laws* but also in his rhetorical works of *De Oratore* and *Orator*. His scholastic originality lies in his effort to maintain that perspective. The main theme of *De Oratore* may seem to be the exposition of art of rhetoric, but it turns out that the most important theme is about “who is the ideal orator?” Cicero’s ideal orator can be compared with Plato’s philosopher-king and statesman, and Xenophon’s King Cyrus. The ideal orator is an ideal statesman who tries to persuade people in comitia, senate, and law courts, having been equipped with universal knowledge and oratory. Cicero thinks that an orator-statesman who acts in the forum by using the art of rhetoric is superior to a philosopher who meditates in his own laboratory with the method of dialectics. He attempts to end the traditional quarrel between philosophy and rhetoric by emphasizing the superiority of rhetoric. Politics newly surfaces in the midst of this quarrel and liberal education(*humanitas*) assumes the role of political education.

Keywords: Philosophy, Rhetoric, Politics, Statesman, Orator, Dialectics, Universal knowledge, Art, Liberal education, *Humanitas*, Roman perspective